

보도시점 : 2026. 9. 10.(목) 06:00 이후(9. 10.(목) 석간) / 배포 : 2026. 9. 9.(수)

최신 측량기술 겨룬다 2026 지적·드론측량 경진대회 개최

- 9월 10일~11일, 전북 남원시 약 300명 지적분야 관계자 및 대학생 참여
- 지적 및 공간정보 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의 장 마련

- 지적·드론측량 분야의 최신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된다. 특히, 올해부터 대학생 부문을 신설해 미래 공간정보 인재의 참여 기회도 넓힌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전북특별자치도(도지사 이원택), 한국국토정보공사(사장 어명소)와 함께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‘남원 종합스포츠타운’에서 「2026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·드론측량 경진대회」를 개최한다.
-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며, 전국 17개 시·도를 대표하는 지방정부 공무원, 한국국토정보공사, 민간업계 종사자 및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여한다.
 - 특히, 올해부터는 드론측량에 대학생 참여 부문을 신설하여 공간정보 미래 인재들이 최신 측량 기술을 경험하고 실력을 겨룰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.
- 지적측량 부문은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측정하는 위성항법시스템(GNSS,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, 예: GPS 등)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측량기술을 평가하고, 드론측량 부문은 저고도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 경계 및 형상 등을 측정한 결과·정확성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.

- 국토교통부는 최신 지적·드론측량 기술을 확산·보급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, 특히 '22년부터 드론측량 부문을 신설하여 현장의 관심을 높였고, '23년 「드론지적측량 규정」 제정으로 드론측량을 제도화했다.
- 드론측량은 일반 지적측량 기법 대비 투입 인원과 시간이 절감되고, 접근이 어려운 산지나 대규모 측량 등에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활용을 확산 중이다.
- 아울러, 대학생부 경진대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지적(산업)기사 자격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여 참가 대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회 방향을 설정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“이번 경진대회가 공공·민간·학계가 지적측량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적·드론측량 분야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측량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	(044-201-3478)
		담당자	사무관	정신애	(044-201-4840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